

《활짝 핀 화원마냥 화려하게 안겨오는 조선옷》, 《우아하면서도 조선민족의 특색이 뚜렷하게 살아나는 옷》, 《옷 색깔과 형태, 문양으로 민족적정향을 풍기는 조선옷이 제일이다.》...

화려한 조선옷을 입은 여성들을 보며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선녀같다고 경탄을 금치 못해 한다. 그래서 명절날, 기쁜날이면 조선옷으로 단장을 하고 나서는것이 공화국여성들에게 있어서 생활의 한부분으로 되고 있다.

아름다운 화원에는 그 화원을 가꾸는 원예사가 있듯이 오늘 우리 여성들이 즐겨입는 조선치마저고리에도 그 것을 더 훌륭히 만들어 민족의 넋과 전통을 빛내여가기 위해 남모르게 바쳐가는 사람들의 애국의 마음이 깃들여 있다.



에로부터 조선민족은 간장을 음식물의 간을 맞추는데 쓰고 된장은 국을 끓여먹는데 써왔으며 고추장은 입맛을 당기게 하는 독특한 조미료로 이용하여왔다.

간장, 된장, 고추장은 쓰이는 재료나 만드는 방법에서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같이 콩을 기본원료로 하고있고 콩을 삶아가지고 적당하게 띄워서 만든다는 점에서 동일한 콩식품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선조들은 수십가지나 되는 간장, 된장, 고추장을 《장》이라는 말로 통틀어 표현해왔다.

원시사회말기부터 콩을 사를 짓기 시작한 우리 선조들은 소나 말 등 집짐승의 거름먹이로 콩을 삶아 먹이곤 하였는데 소나 말이 땅에 떨어져 곰팡이가 쏜 콩을 유별하나 더 맛있게 먹는데 주목하게 되어 삶은 콩을 일부러 띄워서 장을 만들기 시작했것이 장의 유래라고 한다.

간장과 된장은 매 집에서 제각기 담그어먹게 됨으로써 그 방법과 맛이 또한 집마다 다 독특했다고 하며 장을 얼마나 맛있게 담그는가에 따라 그 집의 위상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옛날 선조들은 딸을 법도있는 집에 시집보내려면

## 꽃피나는 우리 생활과 민족옷

### ◆ 동해 조선옷점을 찾아서 ◆

얼마전 우리가 강원도 원산시의 풍치수려한 해안가에 위치한 동해조선옷점을 찾았을 때였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제12차 전국조선옷전시회에서 특등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민족옷을 잘 만들기로 온 나라에 소문이 자자한 이곳 옷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었다. 갖가지 장식기법들로 훌륭하게 제작한 결혼식옷과 명절옷들이 가득한 진열대며 화려하고 우아한 민족옷들을 입어보며 아름다운을 자랑하는 여성들의 밝은 모습...

가을철의 단풍을 보듯 옷꽃들꽃했다. 산뜻하면서도

단정하였다. 세련돼 보이면서도 활력에 넘쳐보이는 우아한 모습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해하는 우리에게 리향옥책임자는 옷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지니 바쁘기는 해도 얼마나 기쁘고 보람찬지 모르겠다고 얼굴에 웃음을 함뿍 담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한번 조선치마저고리를 해입고간 사람들은 두번세번 계속 찾아오고 또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수는 날이늘어나고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대한 자랑을 더해 주려는듯 여러명의 손님들이 또 꼬리를 물고 들어섰

다.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처녀들이며 결혼식날에 입을 첫날옷을 맡기러 왔다는 녀성들 그런가하면 반희장저고리를 찾아입어보는 중년부인들과 60살을 넘기었다는 할머니의 모습도 보였다.

《웃이 날개라더니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으니 더욱 환해보이는구나.》

《이렇게 꼭 맞는 조선옷을 입으니 한결 젊어진것 같애요. 정말 이 조선옷점은 소문이 날만 해요.》

《전에는 머느리의 치마저고리를 했는데 시집가는 딸애의 치마저고리도 여기서 만들어주어야 할것 같구만.》...

그들을 바라보며 리향옥 책임자는 자그마한 손으로 지는 치마저고리를 입고 거리를 밝게 단장하며 다니는 여성들을 볼 때면 조선옷을 만드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곤 한다고 말해주었다.

한번의 조선옷을 만들어도 전통적인 조선옷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세련시켜나가기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던 우리의 눈길은 올해에 진행된 전국조선옷전시회에서 특등으로 평가된 치마저고리에 쏠려었다.

간결하면서도 밝고 선명한 느낌을 주는 독특한 색배합과 자연결은 청령의 철쭉꽃과 사과꽃으로 형성한 문양

들, 세련된 가공솜씨와 나무랄데 없는 가공기술로 특색있게 제작한 이 치마저고리에 대한 손님들의 인기가 각별하다고 한다.

지난 시기에도 그는 휘늘어진 버드나무와 열두쪽치마에 은방울꽃을 형성한 치마저고리, 강성국가의 휘황한 매일을 그려보며 화려한 꽃죽포를 형성한 치마저고리들을 전국조선옷전시회들에 출품하였는데 시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사람들의 미학적정서적요구에 맞게 제작한 이 옷들은 매년 높은 평가를 받곤 하였다고 한다.

그 비결에 대해 그는 우리 녀성들을 더욱 아름답게 내세우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모두가 지혜를 합치고 노력했왔을 뿐이라고, 앞으로 민족의 자랑인 조선옷을 더 훌륭히 만들어내어 누구나 조선옷을 즐겨입으며 민족전통을 이어가도록 하느데서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리향옥책임자와 같이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를 안고 민족옥제작에 열정을 바쳐가고 있는 참된 봉사자들이 있어 조선옷은 우리 녀성들의 생활에서 떨어질수 없는 생활의 한부분으로 더욱 자리잡고있는것 아니라.

민족옷과 더불어 더욱 활짝 꽃피는 아름다운 생활! 동해조선옷점을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우리 식, 조선식이 철저히 구현된 문명강국의 매일의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본사기자 홍범식

## 장미의 3형제

원시사회말기부터 콩을 사를 짓기 시작한 우리 선조들은 소나 말 등 집짐승의 거름먹이로 콩을 삶아 먹이곤 하였는데 소나 말이 땅에 떨어져 곰팡이가 쏜 콩을 유별하나 더 맛있게 먹는데 주목하게 되어 삶은 콩을 일부러 띄워서 장을 만들기 시작했것이 장의 유래라고 한다.

간장과 된장은 매 집에서 제각기 담그어먹게 됨으로써 그 방법과 맛이 또한 집마다 다 독특했다고 하며 장을 얼마나 맛있게 담그는가에 따라 그 집의 위상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옛날 선조들은 딸을 법도있는 집에 시집보내려면

## 고구려무덤벽화의 변하지 않는 채색

고구려무덤벽화는 고구려시기 사람들의 생활과 풍습, 그들의 민족적술기와 예술적재능을 훌륭히 반영하고있는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 나라 회화유물가운데서 가장 력사가 오랜 고구려무덤벽화는 그 생동성에서 동양화의 정수를 이룬다.

고구려무덤벽화들에서 세상사람들이 특별히 감탄하고 있는것은 수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벽화들의 채색이 그대로 보존되고있는것이다. 고구려무덤벽화에 리용된 채색원료는 천연수성안료이

다. 이것은 물기조절에 따라 진하게 또는 연하게, 질거나 얇게 칠할수 있고 바탕재료에 따라 각이한 농담조절로 독특한 색채효과를 낼수 있었다.

고구려화가들은 이러한 채색원료들을 잘 활용하여 묘사대상의 색채특징이 선명하게 살아나도록 함으로써 사물현상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채색법은 중세 전기간 다듬어지고 세련되면서 점차 민족적특징으로, 전통채색화의 화법적 특징으로 되었다.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과 대단한 구성,

## 왕개미가 거목을 흔들려 한다

리향복은 림제의 글재주가 뛰여남을 마음속으로 늘 감탄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남의 문장을 험뜯기 좋아하는 한 선비가 리향복에게 《림제의 글은 문맥이 어성버성하여 잘된 글이라 할수 없소.》라고 하였다.

그때는 림제가 금방 세상을 떠난 뒤였다.

리향복은 선비의 말을 듣고 씁쓸함을 짓고는 청장을 울려다보며 대꾸하였다.

《죽은 림제한테 어찌지 모르겠으나 산 림제에겐 당

치않은 소리일세.》 옆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배를 그러쥐고 폭소를 터뜨리었는데 누구인가 이렇게 말하였다.

《림제는 참말로 문장이 뛰여남에도 불구하고 망명되게도 비난하였으니 가히 왕개미가 거목을 흔들려는것과 같소. 어찌 경망스럽다 아니하리오.》

이렇게 되어 생긴 속담에는 제 분수를 모르고 마구 험뜯으며 말이나 행동을 함을 비유조소하는 뜻이 담겨있다.

본사기자

## 불평이 없는 인간이 없애는 방법

풍부한 회화적언어와 높은 표현기교로 일관된 고구려무덤벽화는 중세 우리 나라 회화의 토대로, 본보기로 되었으며 세계문화의 보물고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유네스코의 전문가들은 고구려무덤의 벽화들을 분석해보고 벽화들이 당시 매우 발전된 후레스코식(회화장식)한 벽이 마르기 전에 무기질의 색재료들로 그리는 채색방법)색묘법으로 훌륭하게 형성되었다는것을 인정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본사기자

몸을 뒤치락거리며 오래동안 잠에 들지 못할 때에는 눈을 크게 뜬 상태, 이발을 짝 사려문 상태 그리고 얼굴근육을 긴장시킨 상태를 최대한 오래동안 유지한다.

이렇게 고도의 흥분상태를 조성해두면 뇌수가 안팎으로 급격히 피로해지면서 인차 졸음이 오게 된다.

본사기자

## 민족의 자랑-평양민속공원을 찾아서

### 관 속 사 물 등

평양민속공원의 고려시기 유적들중에는 충청남도 논산시의 관속사에 있는 돌등을 실물과 똑같이 만들어놓은 관속사돌등도 있다.

평양민속공원에 있는 화강석으로 된 관속사돌등은 높이가 4.5m로서 받침단과 기둥, 불집과 등머리로 되어 있다.

4각으로 된 받침단의 측면에는 연꽃들을 새기고 등근기둥들은 아래와 우 두마디로 나누어져있어 등직해보이는네 마디사이에 세겹으로 된 고리를 끼었다. 기둥들 아래우에는 큼직하게 복련과 양편을 둘우겨 마주 바라다보이게 하였다.

4각평면의 2층으로 이루어진 불집으로 하여 돌등은 매우 무게가 있어보인다. 아래층에는 4개의 4각기둥을 세워 불집의 몸체를 이루고 불구멍을 사방 터워놓아 시원해보이는 관속사돌등은 정말 멋이 있었다.

불집 지붕들의 처마는 가법게 둘러우고 그 네귀에는 큼직한 귀꽃이 있다.

평양민속공원의 류충성실장은 등머리가 보주형으로 되어있어 전반적으로 무게있어 보이는 관속사돌등을 경

관속에 돌아보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자료에 의하면 관속사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고려초기인 968년에 세운 사찰입니다. 관속사에는 돌부처, 돌등, 부도, 관음전, 삼성각, 사명각, 해탈문, 현충각을 비롯한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려 초기인 968-1006년 사이에 만들었다고 하는 돌부처는 높이가 18.12m로서 화강석을 다듬어 만든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관속사 5층탑은 돌부처와 돌등을 있는 층상에 놓여있는데 고려시기의 양상을 잘 갖추고있습니다.

관속사의 법당은 1386년에 지어서 1581년과 1674년에 보수하였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관속사의 건물들과 석조전물들은 비록 불교를 전파하는데 쓰인것이기 는 하지만 당시의 석조예술과 건축술을 알게 하는

귀중한 유산이며 이 유적은 고려문화연구에서 가치는 자료의 하나로 된다는 데하여 이야기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이 겨레의 공동의 유산인 민족문화유산들에 대하여 더 잘 알고 그를 더욱 살려나가고록 하기위해 마음쓰신데 대한 이야기도 전해들으며 우리는 뜨거워오르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본사기자 고영숙



흔히 사람들은 피부의 주름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같은 나이의 사람 중에도 주름이 많고 적은 차이가 있을것을 보면 건강상태와 주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주름이 생기는원인 나이가 들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주는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섬유질과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 피부가 처지면서 주름이 생기게 된다.

특히 섬유질을 지탱하고 수분을 유지해주는 히알루론산이 부족되면 피부가 마르고 얇아진다.

얼굴표정도 주름을 생기게 하는 원인의 하나이다. 표정을 지을 때마다 피부 밑에 있는 근육이 주기적으로 수축함에 따라 주름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로화되고 피하지방이 위축된 상태이므로 주름이 더욱 깊게 생기게 된다.

선천적으로 몸이 약하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거나 정신적피로와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피부세포에 피로균

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긴다.

담배와 자외선도 피부의 적이라고 할수 있다. 자외선을 많이 쏘이면 피부결면의 콜라겐이 파괴되어 얇아지고 탄력이 줄어들어 주름이 생기게 된다.

특정한 표정이나 습관때문에 주름이 생기기도 한다. 이마의 주름은 눈을 우로 치켜

## 주름살과 건강

뜨는 버릇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생기는데 나이가 들어 웃는게물과 눈섭이 처질 때 이마근육으로 눈섭을 들어올리면 주름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

눈과 눈 사이에 생기는 미간주름은 빛에 민감하거나 시력이 나빠 미간을 자주 찡그리는 사람에게서 생긴다.

건조한 가을과 겨울에는 피부의 각질층이 손상되어 기존의 주름이 도드라져 보이고 잔주름도 늘어나게 된다.

◆주름을 예방하기 위한습관 이마를 찌프치프나 눈을 치켜치고 입을 삐죽거리는 등의 표정을 짓지 말아야

본사기자

## 꽃장식품을 만들 때

에도 된다. 비맞은 꽃은 빨리 삼하기 때문에 비오는 날이나 비온 직후에는 될수록 꺾지 말아야 한다.

꽃은 활짝 핀것보다 방금 피려고 하는 꽃을 꺾어야 오래동안 시들지 않는다.

호린 날에는 아무때나 꺾

이나 가위로 마더의 밑을 사선으로 잘라야 한다.

꺾은 꽃을 물에 담그기 전에 필요없는 잎과 작은 꽃망울, 결가지를 따주어야 한다.

꺾은 꽃은 10℃아래의 물에 담그어 바람이 불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었다가 물을 넉넉히 빨아올린 다음 써야 한다.

본사기자

## 사화

## 양호당집과 개성편수 (3)

글 정 의 선, 그림 김 윤 일

사랑방에 들어온 변숙은 양호당앞에 큰절을 하고 편히 앉았다.

《그래 지금 어디에 가게시오? 두문동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두문동에 들어가있다가 채귀하, 박심 등 일곱사람이 벽란도 맞은편 배천에 가 은거하고있소이다.》

《그러니 살아가기 힘들겠소?》

《고려의 옛 관원들치고 지금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사람이 있겠소 이까.》

이들의 말은 자연히 시국형편으로 흘렀다. 변숙이가 양호당과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대부는 어디 갔소이까?》하고 이 집 딸아들 흥수를 찾았다.

《어디 좀 다녀오셨다고 했으니 이제 오셨지. 사둔은

매부보다도 누이가 더 보고 싶겠지. 머느리가 앞채에 있으니 나가서 만나나오. 오래간만에 남매간에 회포를 나누어야지.》 하고 심부름하는 아이를 불러 변숙을 머느리 있는 곳으로 안내해가게 하였다.

오빠를 만난 이 집 딸며느리 변씨는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오라버니, 난 오라버니도 역적놈들에게 잘못된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아계시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에요. 그래 형님들이랑 조카들은 다 잘 있었어요?》

《다 잘 있다. 너의 고풍된 얼굴에도 주름이 졌구나.》

《다 역적놈들때문이지요 뭐.》

《역적놈들때문에 마음고생 안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역적놈들을 잡아서 몽땅 목 매다는 날이 언제나 출가요? 난 우리 아버지와 큰오라버니의 원수를 못 갚고있으니 가슴이 막 터지는것만 같아요.》

《그건 나도 같다. 내 들기에는 개경의 어느 집에서는 리성계의 목을 잘라 삶아먹는다는 뜻으로 떡국을 해먹는다고 하더라.》

《아니, 그런 음식을 만들어 먹는 집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생각을 했군요.》

《오빠, 우리도 그런 음식을 만들어 먹자요.》

변씨는 흥분하여 말했다. 변씨는 매우 활달하고 명랑하고 대바르며 자기의 생각을 숨기지 않는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녀인이었다.

다. 마음이 곧고 견직할뿐 만아니라 웬만한 일에는 우울해지거나 실망할줄 모르

는 진취적이고 담대한 녀인이었다.

그는 무슨 생각엔지 골똘하여 편수를 빚다가 문득 얼굴을 들어 오빠를 바라보며 《오라버니, 이게 뭐 같어요?》하며 자기가 새로 빚은 편수를 내보였다. 그 편수는 편수의 랑귀를 앞으로 돌려 동그렇게 만들었는데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글쎄 뭐라고 할까...》

《아, 오라버니, 이게 울가미 같지 않아요, 울가미?》

《뭐, 울가미?》

《오라버니, 내 말을 좀 들어봐요. 우리 아버님이 비명에 돌아가실 때 리성계역적들을 유죄판결한 때네놈들이 이제 민심의 울가미를 쓰고 죽을것이라고 하잖았잖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리성계의 모가지들 솜아내는 심정으로 이렇게 빚었어요. 그러니 이 편수는 리성계의 모가지들 솜아내는 울가미예요. 어때요?》

《네 말을 듣고보니 그럴

듯 하구나!》

《오라버니, 우리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던 편수를 난 오늘 이렇게 빚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했어요. 그때 오라버니가 이 편수에 대해 설명해주시나요.》하고 웃었다.



《그래그래, 우리 누이동생 변씨가 빚은 편수라고 말해주지. 너의 가특한 마음도 설명해주고...》

변숙이도 기뻐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때 편수를 빚는 일을 돕기 위하여 녀인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변숙은 자리를 떠 앉아서 있는 사랑방으로 갔다. 거기에는 전에 정당 문하학술을 지낸 성여완

등 안면있는 사람들이 와있었다. 변숙은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좌석에 앉았다.

양호당이 쓸쓸하게 말

했다.

《지나해 오늘날 해도 이 좌석에는 고려의 명문가로 불리우는 삼은(포은 정몽주, 목은 리색, 도은 리승인)이다. 모였을때 포은선생과 도은선생은 이미 저승길에 갔고 목은 한사람만 남았구려.》하고 한숨을 쉬었다.

성여완이 입을 열었다.

《목은선생은 왜 아직 안 오실가요? 그 선생은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그러자 변숙이가 《목은선생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라고 했다.

《왜? 무슨 일이 있소?》하고 양호당이 변숙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 선생님이 언짢아하실것 같아서 오늘은 이 말을 하지 않자고 했었는데 물으시니 말할수밖에 없소이다. 어제 목은선생의 두 아들이 다 참을 당했소이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적실하오? 목은선생의 두 아들이 참을 당하다니... 모를 소리요.》

성여완이 격분에 떠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양호당선생, 리성계가 그런 도리를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역적질을 안했을것입니다. 리성계는 승냥이보다 더한 놈이요.》

가까운 사이인데 그럴수 없소. 승헌이가 아무리 악독하더라도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자기 자식들의 은사인 선생의 자제들까지 해칠수는 없소. 혹시 그들이 무슨 불손한 일이라도 저질렀는지 모르나 한번 혼을 내주려고 잡아갔겠지.》하고 양호당은 못미더워했다.

목은 리색은 성균관 대사성으로 있을 때 리성계의 자식들을 가르쳤었고 그후에는 대제학을 지내면서 리성계를 극진히 돌보아주며 그와 각별히 가까이 지냈다. 양호당은 이런 관계가 있었는지라 설마 리성계가 리색의 두 아들을 죽였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성여완이 격분에 떠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양호당선생, 리성계가 그런 도리를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역적질을 안했을것입니다. 리성계는 승냥이보다 더한 놈이요.》

《양호당선생님, 제가 어제 그들이 참을 당하는걸 목격했소이다.》

본사기자